한국사 문제 7월17일

1. 다음 자료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<u>않은</u> 것은

저 무도한 왜적을 우리 강토에서 한명도 남김없이 소탕해 버릴 것이요, 또 일진회의 도당은 왜적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 그 죄를 단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니, 이제 왜적은 구멍에 든 쥐요, 함정에 빠진 범과 같으니, 우리 이천만 동포가 한때의 고초를 꺼려하지 말고 마음과 힘을 뭉쳐 수십 년 골수에 맺힌 원수를 갚고 삼천리강토를 회복하려면, 돌아가신 조상의 영혼도 지하에서 마땅히 기뻐할 것이니 어찌 힘쓰지 않겠는가.

① 애국계몽단체에게 비적(비도)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.
② 해산군인이 가담하자 전력이 급상승되기도 하였다.
③ 공화정을 추구하였으며 친일부호로부터 독립자금을 갈취하였다.
④ 단발령에 반발하여 발생하기도 하였다.
⑤ 일제의 불법적인 외교권 박탈 조약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였다.

2.밑줄 친 <u>'이 국회'</u>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<u>않은</u> 것은 (수완 119p 1번)

총선 후 이 국회의 원내 세력 분포의 특징은 무소속(85석)이 많은 수를 점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고 ……이 국회가 존속했던 기간 중 정기회 2회, 임시회 4회 등 총 6회의 회의가 있었으며, 총회의 일수는 639일로서 연평균 320일로 연중 내내 국회가 열려 있었음을 보여준다. 총 399일간의 본회의가 개회되었으며 이는 연평균 200일 본 회의를 연 것이 되고 회기 중에는 거의 이틀(1.6일)에 한 번 꼴로 본 회의가 열린 셈이 된다.

① 신한공사와 함께 귀속농지를 처분하고자 하였다.
② 대통령 이승만을 간선제로 선출하였다.
③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였다.
④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원칙으로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였다.
⑤ '반민법'을 제정하여 친일파를 처벌하고자 하였다